

1903~1906년 漢城府 住民의 가족 구성과 삶의 방식들

- 光武 7년 · 10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김현진*

〈차 례〉

- 머리말
- 戶主의 개인 특성에 의한 가족 분석
- 同居 親屬의 내용에 따른 가족 분석
-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光武 7년 · 10년 漢城府 5署 12坊 지역의 光武 戶籍을 활용하여 3,935戶의 호주와 그의 동거 친속 내용을 가족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그들의 가족 구성을 호주와 동거 친속의 관계성에 따라서 독신과 핵가족 그리고 확대가족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족 형태별로 나타나는 집단적 성향과 특징을 지역별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특성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 형태에 반영된 호주의 개인 특성은 호주 연령, 직업 그리고 기구 · 고용 비율과 첩 포함 가족으로 접근하였다. 호주의 연령대별로 나타난 개인 능력과 상황은, 가족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호주의 직업도 가족 형태별로 특정 직업에서 집단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寄口 · 雇傭 포함 가족과 첩 포함 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 호주 가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첩 포함 가족은 한성부에서 다수 존재하였던 특징적인 가족 구성이었다.

둘째, 가족 형태를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前)관직 가족뿐만 아니라 상업, 평민, 儒業 호주의 가족들도 다양하고 다수의 親屬을 그들 가족에 포함하며 인척 결속을 강화하고 있었다. 가족 규모는 지역별로 동거 친속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부분 가족 형태에 따라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가택 규모 · 유형으로 가족 형태별 경제 상황을 살

* 인하대 사학과 강사

펴보았을 때, 다수의 가족이 11칸 이상의 가택을 소유할 정도로 경제 수준이 낮지 않았으며, 특히 확대가족은 11칸 이상의 가택 비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확대가족의 구성에서 경제 수준이 중요한 요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택 유형에서 지역별 가족은 기와와 기초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 이동과 지속의 가능성에 따라서 독신과 확대가족은 11칸 이상의 기와에서, 핵가족은 10칸 이하의 기초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1903~1906년 한성부의 가족을 광무 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호주 개인의 성격 그리고 거주지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가족 관계를 다양하게 구성·강화하면서 가족 형태별로 특정한 집단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 형태별로 나타났던 집단적 삶의 방식들은 그들이 한성 부라는 근대 도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광무 호적, 한성부,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집단성

1. 머리말

본 연구는 光武 7년·10년 漢城府 戶籍을 활용하여, 漢城府 주민의 가족 구성에서 나타났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광무 호적을 활용한 연구는 대부분 호주의 개인 정보에 주목하여, 호주의 성격과 특징¹⁾을 살펴보거나 호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거주 지역의 특성²⁾에 대해 접근하였다. 그러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호주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와 관련된 인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호주에 집중된 연구에서 벗어나 호적에 기재된 다양한 인적 내

1) 조은·조성윤, 「韓末 서울 지역 妾의 존재 양식 -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사회와 역사』 제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04; 김현진, 「근대 초기 한성부에서 나타난 삶의 경제와 계층적 변화 - 戶籍에 기재된 平民 집단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64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김현진, 「1903~1906년 漢城府 軍人 계층의 거주 특성과 성격 - 光武 7~10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서울과 역사』 제100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22; 이정주, 「19세기 말~20세기 초 호적 자료를 통해 본 한성부의 가택과 그 특성」, 『역사민속학』 제65호, 역사민속학회, 2023; 이정주,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성부의 고용인과 의탁인」, 『한국학연구』 제72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4; 차인배,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을 통해 본 순검의 거주와 생활 양상」, 『역사민속학』 제51호, 역사민속학회, 2016.

2) 吉田光男, 『近世ソウル都市社會研究 - 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2009; 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거주민 양상과 都市性格 - 光武 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31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김현진,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3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김현진,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 - 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44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7.

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광무 호적의 동거 친속 항목은 호주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동거 친속을 활용한 연구는 호주와 동거 친속의 관계에 주목하여 근대 초기 가족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에 호주와 동거 친속의 관계를 바탕으로 호주의 직업에 따라서 가족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거나,³⁾ 동거 친속에 포함된 호주 자녀의 기재 순위에 주목하여 호주가 가족 안에서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접근하였으며,⁴⁾ 또한 호주와 동거 친속 관계에서 나타나는 非宗法的 가족 구성을 호주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하기도 하였다.⁵⁾

본 연구는 한성부 광무 호적 연구의 양·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호주에 한정된 연구에서 벗어나 호주와 동거 친속에 기재된 구성원을 가족으로 재구성하여 한성부의 가족 형태와 그에 따른 집단적 성향을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개념과 범위는 호주와 그의 호적에 기재된 동거 친속 항목으로 접근하였으며, 이에 가족을 동일 호에 거주하며 혈연, 혼인 관계 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이해하였다. 당시의 호적 조사는 전국 내의 戶口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기에, 당시의 호적은 가족이 아니라 호구 조사를 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었다. 이에 호적에 기재된 전체 인적 사항은 혈연과 혼인에 의한 관계뿐만 아니라 비혈연의 인적 관계도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호적에 기재된 모든 인적 관계는 ‘家族’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家口’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호적에 기재되었던 寄口·雇傭이다. 기구·고용은 호적 내에 다른 인적 관계들과 다르게 이름과 나이 없이 성별과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호주의 동거 친속

3) 김현진, 「근대 초기 도시가족 구성에서 보이는 여성의 존재와 경계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에 기재된 여성호주를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50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김현진,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 양상과 가족 특성 - 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53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

4) 김현진, 「근대 초기 도시가족과 兒童 인식의 패러다임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향토서울』 제91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5.

5)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 -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 」, 『서울과 역사』 제92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6.

이 아니라 기구·고용 항목에 따로 구분되어 기재되었다.⁶⁾ 이들은 호주 그리고 그의 동거 친속과 함께 동일 호에서 거주하였으나, 호주와 이들의 관계는 ‘家族’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 관계인 ‘家口’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호주와 그의 호적에 기재되었던 동거 친속 관계로만 한정하였고, 동거 친속 항목에 기재되었던 인적 관계는 대부분 호주와 혈연 그리고 혼인으로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에서 가족은 동일 호에 거주하며 호주와 혈연, 혼인 관계 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접근하였다.⁷⁾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한성부 광무 호적이다. 한성부 광무 호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자료적 특성 때문에 한성부 광무 호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접근하였다. 그런데 한성부의 광무 호적은 전 시기·지역별 소속 坊의 호적이 완벽히 남아 있지 않고, 시기·지역별로 호적 분량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성부 광무 호적을 자료의 선별 없이 통계 분석한다면 왜곡될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남아 있는 전체 한성부 광무 호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통계 분석할 경우에, 다량의 광무 호적이 남아 있는 일부 지역의 특성이 전체 한성부의 특성으로 왜곡될 수 있다.

물론 현재 확인되는 한성부 광무 호적이 시기·지역별로 호적 분량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료적 선별을 한다고 해도 시기·지역별 호적 분량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성부 광무 호적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할 때, 자료적 한계를 인지하고 이에 따른 왜곡된 결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

6) 기구가 동거 친속에 포함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해당 기구는 호주와의 관계에서 四寸으로 기재되어 있다.

7) 당시 호적에 기재된 모든 인적 관계는 혈연·혼인에 의한 관계뿐만 아니라 ‘家口’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호적에 기재된 모든 인적 관계 중에서 호주와 그의 동거 친속에만 주목하여 호주와 그들의 관계를 혈연과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보았다. 그러나 해당 시기 가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혈연과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내용과 성격도 중요하다 본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자료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建陽 元年·光武 7년·光武 10년의 전체 한성부 호적에서 세 시기에 중복된 호적은 한 시기의 호적만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北署의 光武 7년 延禧坊, 光武 7년 順化坊, 光武 7년 嘉會坊, 光武 7년 安國坊, 光武 10년 陽德坊, 光武 7년 廣化坊, 中署의 光武 7년 堅平坊 호적을 선택하였다.

〈표 1〉 1·2차 선별된 연구 자료

지역		戶數	시기		지역	戶數	시기
北署	嘉會坊	272	1903 (光武7년)	東署	蓮花坊	227	1903
	安國坊	172	1903		合	227	
	觀光坊	611	1906 (光武10년)	西署	盤松坊	495	1903
	合	1,055			龍山坊	250	1903
				合	745		
中署	壽眞坊	295	1906	南署	廣化坊	194	1903
	瑞麟坊	213	1906		薰陶防	791	1903
	澄清坊	233	1906		大平坊	191	1903
合	741		合		1,176		

둘째, 지역(署)별 가족 특성을 좀 더 뚜렷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坊은 인근 지역과 거리상 떨어져 있으며, 동일 지역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방향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2차로 선별된 자료는 北署 3坊(嘉會坊·安國坊·觀光坊) 1,055戶, 中署 3坊(壽眞坊·瑞麟坊·澄清坊) 741戶, 東署 1坊(蓮花坊) 227戶, 西署 2坊(盤松坊·龍山坊) 745戶 그리고 南署 3坊(廣化坊·薰陶防·大平坊) 1,176戶로 총 12坊 3,944戶이다.

셋째, 3,944호 중에서 원문이 훼손되어 동거 친속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北署 觀光坊 3戶, 中署 壽眞坊 1戶, 西署 盤松坊 2戶, 南署 薰陶防 2戶 그리고 大平坊 1戶, 총 9戶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선별된 자료는 5署 12坊 3,935戶이다.

3,935호의 가족 구성은 호주와 동거 친속의 관계에 따라서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으로 구분하였다. 독신은 호주의 동거 친속 항목에 아무런 인적 정보가 없는 경우로, 해당 호에서 호주와 혈연,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인적 대상이 全無한 경우이다. 핵가족은 호주와 부부 그리고 미혼 자녀 관계로 구성된 사례이다. 확대가족은 핵가족의 인적 구성 이외에 (비)직계·인척 관계가 동거 친속에 포함한 경우이다. 이러한 가족 유형에 따라서 3,935戶를 분석하면, 독신 7.7%(303戶), 핵가족 47.3%(1,862戶) 그리고 확대가족 45.0%(1,770戶)로 나타났다.

〈표 2〉한성부 五署의 가족 형태

지역 유형	北署				中署				東署	
	嘉會坊	安國坊	觀光坊	평균	壽眞坊	瑞麟坊	澄清坊	평균	蓮花坊	평균
독신	5.9	9.2	7.4	7.5	11.6	16.9	10.3	12.7	4.8	4.8
핵가족	50.7	57.0	48.8	52.2	44.9	43.7	38.6	42.6	43.2	43.2
확대가족	43.4	33.8	43.8	40.3	43.5	39.4	51.1	44.7	52.0	52.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유형	西署			南署			
	盤松坊	龍山坊	평균	廣化坊	薰陶坊	太平坊	평균
독신	3.0	2.8	3.0	20.1	6.2	5.8	8.5
핵가족	56.2	56.0	56.1	32.0	44.6	44.8	42.5
확대가족	40.8	41.2	40.9	47.9	49.2	49.4	49.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통계 수치는 %이며, 이하 모든 통계에서도 동일함.

가족 유형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독신을 제외하고 핵가족과 확대가족 비율이 전 지역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특정한 가족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진 않았다. 그런데 주목할 내용으로 중서 지역을 제외하고, 동일 지역의 소속 坊에서 특정한 가족 형태가 똑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지역의 가족 구성과 특징이 거주 지역(署)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성부의 가족 구성과 성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 한성부의 가족 형태를 五署로 구분하여 지역별 가족 구성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한성부 전체 가족에서 나타났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접근할 것이다. 둘째, 가족 형태별로 나타나는 성

격과 특징은 호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접근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도 아울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로 밝혀진 한성부의 가족 구성과 특징을, 한성부 거주민들이 근대 초기 도시라는 시간·공간적 특성 속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시킨 결과로 이해할 것이다.

2. 戶主의 개인 특성에 의한 가족 분석

호주의 특성이 가족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호주의 연령에 따른 가족 형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독신은 북서와 중서의 50대, 서서 40대, 동서 60대 그리고 남서의 30대 비율에서 높았으며, 남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40대 이후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한성부 五署 가족의 호주 연령

유형 연령	北署			中署			東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10대	1.3	0.2	5.9	0.0	0.3	7.2	0.0	0.0	3.4
20대	9.1	8.8	18.8	8.5	9.5	13.3	9.1	8.2	11.9
30대	18.2	25.5	22.2	22.3	30.5	15.1	9.1	25.4	19.5
40대	22.1	33.0	17.9	20.2	26.4	21.5	0.0	32.7	20.3
50대	32.5	23.1	19.5	27.7	23.8	20.5	18.2	23.5	25.4
60대~	15.6	9.2	15.7	21.3	9.5	22.4	63.6	10.2	19.5
不明	1.2	0.2	0.0	0.0	0.0	0.0	0.0	0.0	0.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연령	西署			南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10대	9.1	0.0	2.3	2.0	0.6	6.4
20대	0.0	4.8	17.8	10.1	8.6	14.6
30대	0.0	19.9	27.3	28.3	28.7	17.9
40대	40.9	35.3	16.1	20.2	30.3	20.4
50대	18.2	26.8	18.8	17.2	21.8	19.5
60대~	22.7	13.2	17.7	21.2	9.2	21.0
不明	9.1	0.0	0	1.0	0.8	0.2
합	100	100	100	100	100	100

* 不明은 원문 훼손으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이후 표에서 불명은 같은 사례임.

둘째, 북서, 동서, 서서 그리고 남서의 핵가족은 모두 40대에서 그리고 중서는 3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전 지역의 30~40대에서 높았다. 셋째, 확대가족은 북서와 서서에서 30대, 중서와 남서 60대 그리고 동서의 50대에서 높게 나타나 한성부 전체 지역으로 보았을 때, 20~30대와 50~60대 두 연령대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었다.

결과적으로 독신은 40대 이후, 핵가족은 30~40대에서 그리고 확대가족은 20~30대와 50~60대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성부 주민의 가족 구성은 호주 연령에 따라서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호주 연령에 따른 가족 구성의 특징은 호주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동거 친속 등 다양한 원인을 포함하였다.

먼저 독신은 모든 지역의 40세 이후에서 60% 이상일 정도로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서 다소 고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한성부의 호주는 한성부에서 자신의 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이었고, 특히 성내 지역에서 자신의 가택을 가지고 있던 호주는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한성부의 대다수 독신은 상위 계층이었던 (前)관직과 상업 종사자에 집중되었고 그들은 직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호에서 寄口·雇傭과 함께 거주하며 11칸 이상의 가택을 소유할 만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한성부의 독신은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40대 이후에서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었다.⁸⁾

다음으로 핵가족 호주는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호주의 결혼 시기와 그에 따른 동거 친속 때문이었다. 핵가족 내에서 보편적인 가족 구성은 호주와 처 그리고 미혼 자녀이다. 핵가족의 호주와 미혼 자녀 연령을 상호 비교했을 때, 대략 호주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30대~40대에 이르러 20살 미만의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다수

8) 한성부 北署 城外의 3坊(延恩坊·延禧坊·常平坊)에서 독신 호주는 9명이었으며, 전체 호주의 1.7%로 매우 적은 비율을 보였다. 그들의 연령은 40대 이후에서 높아 성내의 독신과 비슷하였지만, 대부분 직업이 농업이나 무기재이었으며, 5칸 이하의 己草와 寄口·雇傭 없이 홀로 거주하는 등, 성내의 독신과 비교해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보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핵가족의 호주 연령은 평균적으로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확대가족 호주는 20~30대와 50~60대 두 연령대에서 높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호주의 동거 친속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호주가 20~30대인 확대가족은 대개 母와 妻·子·女 그리고 미혼인 弟·妹와 함께 거주하는 사례에서 높았으며, 호주가 50~60대인 확대가족은 기혼인 아들과 婦·孫子·孫女 이외에 姪·聘母 등 다양한 방계·인척이 동거 친속에 포함되었다.

〈표 4〉한성부 五署 가족의 호주 직업

유형 직업	北署			中署			東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前)官職	27.3	44.7	39.4	19.1	39.1	43.5	9.1	50.0	51.7
商業	11.7	17.3	17.9	41.5	29.2	29.3	0.0	9.2	8.5
平民	3.9	13.9	13.1	2.1	12.7	7.9	9.1	17.3	10.2
儒業	2.6	8.6	12.0	0.0	4.1	8.8	9.1	3.1	6.8
軍·巡	0	3.2	4.1	0.0	2.2	1.2	0.0	11.2	13.6
吏屬	0	3.2	3.8	1.1	4.8	2.4	0.0	2.0	4.2
農業	0	0.0	0.0	0.0	0.0	0.0	0.0	1.1	0.8
專門·技術	1.3	2.1	3.2	1.1	1.3	1.8	0.0	2.0	0.0
不明	53.2	7.0	6.5	35.1	6.6	5.1	72.7	4.1	4.2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형 지역	西署			南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前)官職	0.0	5.8	7.6	16.2	33.7	42.2
商業	40.9	61.4	57.9	31.3	27.7	19.8
平民	13.6	20.9	18.4	2.0	15.6	12.3
儒業	9.1	2.2	4.6	5.1	9.2	13.0
軍·巡	4.6	1.9	6.3	1.0	2.8	2.3
吏屬	0.0	0.2	0.7	0.0	1.6	1.0
農業	0.0	2.2	1.9	0.0	0.2	0.0
專門·技術	0.0	0.7	0.0	2.0	2.4	3.3
不明	31.8	4.7	2.6	42.4	6.8	6.1
합	100	100	100	100	100	100

한성부 주민의 가족 구성과 호주 직업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복서와 동서는 모두 (前)관직에서 높았으며, 중서와 남서 또한 상업에서 높았던 독신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 형태가 (전)관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지 서서의 모

〈표 5〉한성부 五署 가족의 寄口·雇傭

지역 유형	北署			中署			東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寄男	2.6	2.1	2.3	3.2	0.9	1.8	0.0	3.1	0.0
寄女	6.5	2.6	2.0	6.4	1.9	2.7	27.3	1.0	1.7
寄男+寄女	9.1	9.2	5.0	9.6	7.0	4.2	0.0	2.0	4.2
雇男	0.0	1.9	1.8	2.1	1.3	1.5	0.0	0	1.7
雇女	9.1	4.1	2.9	2.1	5.4	3.3	0.0	0	0.9
雇男+雇女	14.3	15.2	14.5	11.7	21.0	27.8	0.0	1.0	4.2
寄口+雇傭	26.0	11.0	12.4	8.5	14.0	13.3	9.1	1.0	4.2
無記載	32.4	53.9	59.1	56.4	48.5	45.4	63.6	91.9	83.1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유형	西署			南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寄男	0.0	1.0	0.7	1.0	1.9	1.5
寄女	0.0	0.7	0.3	6.1	2.2	1.0
寄男+寄女	0.0	1.7	3.0	11.1	9.2	4.0
雇男	0.0	0.0	0.0	0.0	1.4	1.7
雇女	0.0	0.2	0.0	5.1	2.8	3.1
雇男+雇女	0.0	0.5	0.7	10.1	14.2	24.9
寄口+雇傭	0.0	0.0	0.0	7.1	11.4	9.9
無記載	100.0	95.9	95.3	59.5	56.9	53.9
합	100	100	100	100	100	100

첫째, 독신의 기구·고용 동거 비율을 살펴보면, 북서의 독신은 寄口+雇傭, 중서는 雇傭男+雇傭女, 동서는 寄女 그리고 남서는 寄男+寄女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개 항목을 기구와 고용만으로 구분했을 때, 한성부의 전체 독신은 기구와 동거하는 비율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북서와 중서 그리고 남서의 핵가족은 雇傭男+雇傭女 항목에서 높았으며, 동서와 서서는 寄口男 그리고 寄口男+寄口女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핵가족은 기구와 고용의 비율 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셋째, 확대가족은 핵가족과 유사하게 북서와 중서 그리고 남서에서 雇傭男+雇傭女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구와 고용의 비율에서 보면, 독신과 반대로 기구보다 고용과 함께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은 기구와 비교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호주와 그의 가족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숙식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았다. 이에 기구보다 고용

과 함께 거주했던 호주가 경제적 능력에서 훨씬 더 상위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체 가족 유형 중에 고용 비율이 가장 높았던 확대가족은 다른 가족과 비교해서 경제적 능력에서 좀 더 상위이었다고 판단된다. 호주의 경제적 능력을 기구·고용과의 거주 비율로 보았을 때, 가족 형태의 경제적 우위는 확대가족>핵가족≥독신 순이었다. 호주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또 다른 호적 내용으로 가택 규모와 종류가 있는데, 추후 살펴볼 가택 내용에서도 확대가족이 다른 가족 형태보다 경제적으로 상위이었던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6〉한성부 五署의 첩 포함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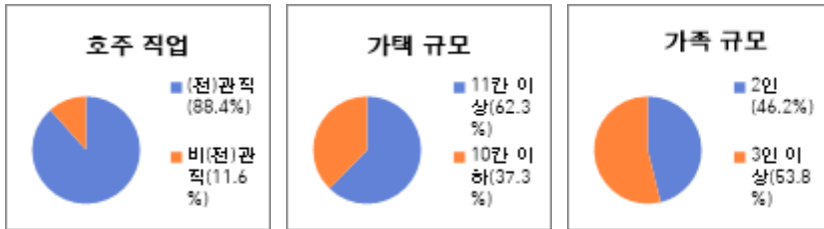
지역 유형	北署				中署				東署	
	嘉會坊	安國坊	觀光坊	평균	壽眞坊	瑞麟坊	澄清坊	평균	蓮花坊	평균
첩 포함 핵가족	19.6	20.4	15.8	17.6	9.1	5.4	12.6	7.3	1.0	1.0
첩 포함 확대가족	5.9	8.6	1.5	3.6	1.6	2.4	1.7	1.8	1.7	1.7

지역 유형	西署			南署			
	盤松坊	龍山坊	평균	廣通坊	薰陶防	大平坊	평균
첩 포함 핵가족	0.4	0.7	0.5	17.7	14.8	12.9	14.8
첩 포함 확대가족	0.9	0.0	0.6	2.2	3.4	4.3	3.3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다수의 첩 포함 가족은 한성부 가족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 표를 보면, 첩을 포함했던 호가 지역에 따라서 최대 20%를 넘기며 전체 가족 형태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으며, 첩 포함 가족의 비율은 북서(21.2%)>남서(18.1%)>중서(9.1%)>동서(2.7%)>서서(1.1%) 순이었다. 첩 포함 가족 비율이 높았던 북서와 중서 그리고 남서는 핵가족에서 첩을 포함한 사례가 높았으며, 첩 포함 비율이 낮았던 동서와 서서는 확대가족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성부 광무 호적을 활용한 기존 연구는 당시의 첩에 대해, 한성부 내에서 상위의 능력을 갖춘 호주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파악하였다.¹¹⁾ 첩 포함 건

수가 높았던 북서의 가회방, 중서의 수진방, 남서의 훈도방에서 첩을 포함했던 총 130호를 대상으로, 첩 포함 호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그들의 직업과 가택 그리고 가족 규모로 분석하였다.



〈그림 1〉 한성부 첩 포함 호주의 사회경제적 양상

동거 친속에 첩을 포함했던 호주들은, 그들의 직업이 관직에서 88.4%로 나타나 특정 직업에 집중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가택 규모는 11칸 이상이 전체의 62.3%일 정도로 작지 않은 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첩 포함 가족의 호주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또한 첩 포함 가족은 호주+첩으로 구성된 2인 규모에서 46.2%로 나타나 3인 이상의 가족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매우 높았다. 호주+첩으로 구성된 2인 가족은 해당 호주가 다른 호의 호주로 존재했을 확률이 높으며, 이에 그들은 한성부 내에서 2채 이상의 가택을 소유할 만큼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¹²⁾ 결국 한성부의 첩 포함 가족

11) 조은과 조성윤은 한성부 호적에서 첩을 기재하였던 635호를 대상으로 첩을 포함했던 한성부 호주의 83.9%가 양반(관직자와 일반 양반)이었고, 그들의 가택 규모는 대다수가 10칸 이상에서 높았다는 사실을 밝히었다(조은·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상 -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권, 한국사회사학회, 2004, 86~90쪽). 또한 김현진은 광무 10년 한성부 北署 城內 8坊 호적에 기재된 첩 포함 243호를 분석하여 첩을 포함했던 호주는 상위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한성부 성내의 호주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보았다(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居住民 樣相과 都市性格: 光武 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1집, 2013).

12) 조은, 조성윤은 “첩이 있는 집들 중에서 처첩이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와 따로 독립된 가옥에 거주하는 경우를 구분해 보았을 때……첩별호 가호가 90%를 넘는다는 것은 첩이 대부분 처와 한 집에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처럼 첩별호 가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호주가 적어도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집 식구들뿐만 아니라

은 한성부 호주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다수 나타났던 특정한 가족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¹³⁾

3.同居 親屬의 내용에 따른 가족 분석

한성부 주민의 가족 구성을 호주의 특성 이외에 가족 구성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앞서 한성부의 가족 형태를 독신과 핵가족 그리고 확대가족으로 구분하였는데, 호주의 동거 친속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각각의 가족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독신은 독신 남성(獨男)과 독신 여성(獨女)으로, 핵가족은 호주+처 그리고 호주+(처)+미혼 자녀 유형으로, 확대가족은 직계 중심과 비직계 포함으로 구분하였다.¹⁴⁾

6개로 세분화한 가족 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서와 서서는 핵가족 중에 호주+(처)+미혼 자녀에서 높았으며, 동서와 남서 그리고 중서는 확대가족 중에 호주+직계 중심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성부의 독신 남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높은 거주 비율을 보였으며, 그들의 직업과 가택 규모 그리고 기구·고용 동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성부 이외 다른 지역의 독신 남녀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보이었다.¹⁵⁾ 핵가족은 전

별호에 거주하는 첩과 그 가족의 가계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상 -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5권, 한국사학회, 2004, 90쪽).

13) 첩 포함 호에서 해당 호주는 다른 호에 본래 가족이 따로 있을 가능성 때문에, 호주와 첩의 관계를 ‘가족’이 아닌 ‘家口’로 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족을 호주의 동거 친속에 기재된 인적 관계로만 한정하였으며, 호주가 직접 기재했던 동거 친속의 인적 사항은 호주와 혈연,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들이었다. 호주가 본인 호적의 동거 친속에 첩을 기재했다는 것은 첩을 혈연,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와 동일하게 자신의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첩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동거 친속 항목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기구·고용 항목에 기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성부 광무 호적에서 첩은 호주의 동거 친속 항목에 다수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호주와 첩으로 이루어진 호를 당시 한성부에서 다수 존재하였던 특정한 가족 구성으로 이해하였다.

14) 핵가족과 확대가족에서 (처) 표기는 가족 구성원에 처가 포함되거나 혹은 포함되지 있지 않은 두 가지 사례를 모두 포함하며, 확대가족에서 직계 중심은 동거 친속에 호주의 직계 친속과 그들의 처까지 포함된 것이며, 비직계 포함은 동거 친속 항목에 방계와 인척이 기재된 경우이다.

〈표 7〉한성부 五署의 세부 가족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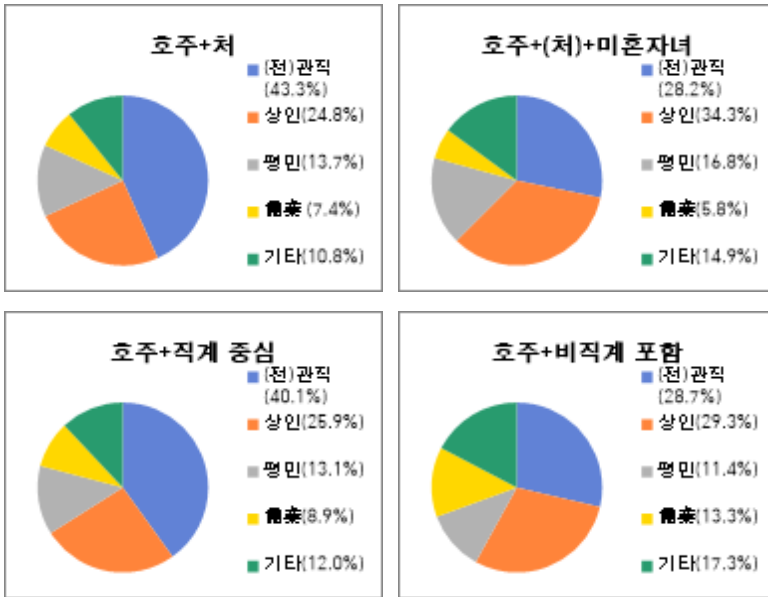
유형	지역	北署				中署				東署	
		嘉會坊	安國坊	觀光坊	평균	壽眞坊	瑞麟坊	澄清坊	평균	蓮花坊	평균
獨男		3.3	4.6	3.6	3.8	6.2	14.1	4.7	8.0	1.3	1.3
獨女		2.6	4.6	3.8	3.7	5.4	2.8	5.6	4.7	3.5	3.5
戶主+妻		19.1	24.4	15.8	19.8	13.6	11.8	12.4	12.7	4.4	4.4
호주+(처)+미혼 자녀		31.6	32.6	33.0	32.4	31.3	31.9	26.2	29.9	38.8	38.8
호주+(처)+직계 중심		29.8	26.2	32.2	29.4	31.3	29.1	36.5	32.3	40.1	40.1
호주+(처)+비직계 포함		13.6	7.6	11.6	10.9	12.2	10.3	14.6	12.4	11.9	11.9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형	지역	西署			南署			
		盤松坊	龍山坊	평균	廣化坊	薰陶坊	大平坊	평균
獨男		2.1	2.4	2.3	13.4	3.2	3.2	4.9
獨女		0.9	0.4	0.7	6.7	3.0	2.6	3.6
戶主+妻		10.4	13.6	11.4	12.9	13.8	14.8	13.8
호주+(처)+미혼 자녀		45.8	42.4	44.7	19.1	30.8	30.0	28.7
호주+(처)+직계 중심		29.6	26.4	28.5	34.5	35.2	34.2	34.9
호주+(처)+비직계 포함		11.2	14.8	12.4	13.4	14.0	15.2	14.1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에서 호주+처 보다 호주+(처)+미혼 자녀에서 높았으며, 확대가족도 전 지역에서 직계 중심이 비직계 포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분화된 가족 형태를 호주의 직업에 따라서 분석하면, 호주+(처)+미혼 자녀는 상인과 평민 호주의 가족에서 높았는데 호주+처 유형에서 24.8%인 상인과 13.7%인 평민은 호주+(처)+미혼 자녀에서 34.3% 그리고 16.8%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상인과 평민 호주 가족으로 인해서 핵가족 내에서 호주+처 보다 호주+(처)+미혼 자녀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15) 독신의 경우에 北署의 獨男은 20~40대의 관직 호주에서 中署와 西署, 그리고 南署의 獨男은 30~50대 상업 호주에서 높았다. 西署를 제외하고 전 지역의 독남은 대부분 11칸 이상의 가택 그리고 기구·고용과 함께 거주하는 등 그들의 경제적 수준은 열악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 獨女는 40~60대인 과부와 尙宮들이었으며, 이들은 서서를 제외하고 가택 규모와 기구·고용 거주 등 경제적 면에서 독남보다 더 나은 상황을 보였다.



〈그림 2〉호주 직업과 세부 가족 형태

다음으로 확대가족을 호주의 직업에 따라서 분석하면, 호주+직계 중심은 핵가족 중에 호주+처 유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전)관직 호주 가족이 40.1%로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호주+비직계 포함은 호주+직계 중심보다 상인과 유업 호주의 가족 비율에서 높았다.

결국 가족 형태를 6개로 세분화하여 호주 직업과 연관 지어서 살펴보았을 때, 한성부의 전통적 지배집단이었던 (전)관직 호주의 가족 이외에, 상인과 평민 그리고 유업 등 다양한 직업의 일부 호주들은 그들 가족에 다수의 동거 친속(자녀·형제·인척 등)을 포함시키며 (전)관직 가족과 비슷한 가족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의 결합을 통해서 한성부 내에서 그들 가족의 존재를 지속·강화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8〉한성부 五署 가족의 규모

지역 규모	北署			中署			東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1인	100	0.0	0.0	100	0.0	0.0	100	0.0	0.0
2인	0.0	38.5	9.5	0.0	32.1	3.9	0.0	12.2	0.8
3인	0.0	26.8	15.4	0.0	27.9	12.4	0.0	23.5	10.2
4인	0.0	20.6	21.5	0.0	18.4	19.3	0.0	33.7	20.3
5인	0.0	8.4	22.4	0.0	14.3	13.0	0.0	13.3	15.3
6인	0.0	3.6	12.2	0.0	3.5	14.2	0.0	8.2	21.2
7인	0.0	1.3	7.7	0.0	2.5	15.1	0.0	7.1	11.9
8인 이상	0.0	0.8	11.3	0.0	1.3	22.1	0.0	2.0	20.3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규모	西署			南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1인	100	0.0	0.0	100	0.0	0.0
2인	0.0	23.3	9.6	0.0	35.3	4.9
3인	0.0	31.7	17.4	0.0	24.5	13.9
4인	0.0	24.7	19.7	0.0	20.2	23.1
5인	0.0	14.1	22.7	0.0	11.6	18.1
6인	0.0	5.0	15.8	0.0	5.8	13.7
7인	0.0	0.7	8.2	0.0	1.8	9.2
8인 이상	0.0	0.5	6.6	0.0	0.8	17.1
합	100	100	100	100	100	100

* 가족 규모는 해당 호의 기구와 고용을 제외하고, 호주와 동거 친속의 인원수를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가족 규모에 따라서 가족 형태는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독신은 당연히 가족 규모에서 1인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듯이 이들은 親屬과 거주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기구·고용과 함께 거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북서와 중서 그리고 남서의 핵가족은 2인에서 높았으며, 서서는 3인 그리고 동서는 4인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북서와 서서의 확대가족은 5인에서, 중서와 남서는 4인 그리고 동서는 6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동거 친속의 차이로 인해 해당 가족의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동거 친속에 따라서 가족 형태를 6개로 세분화한 앞선 내용에서, 북서와

중서 그리고 남서는 핵가족 중에 호주+(처)+미혼 자녀에서 높았다. 이에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의 가족 규모가 3인 이상에서 높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제로 호주+(처)+미혼 자녀 유형에서 처가 없이 호주+1인 미혼 자녀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전체 핵가족의 규모는 2인에서 높았다. 확대가족의 규모도 지역에 따라서 4인~6인으로 차이를 보였다. 확대가족에서 일반적인 가족 구성은 戶主+妻+子+子婦+孫子(女)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처·자부·손자(녀) 중에 일부가 생략되면 해당 확대가족의 규모는 4인 이하로 나타났고, 母와 2인 이상의 손자(녀) 그리고 호주의 방계인 형제·자매와 사촌이 동거 친속에 포함되면 가족 규모는 6인 이상으로 나타났다.

같은 가족 형태라도 가족 규모는 지역별 동거 친속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 대상인 5署 12坊 지역만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지역적 차이가 특정 공간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특정 공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었던 북서와 중서 그리고 남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안의 가족은 그 외 지역의 같은 가족 형태와 비교해서 가족 규모에서 좀 더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해당 공간 밖에 있었던 동서와 서서 지역의 가족은 해당 공간 안에 있었던 가족과 비교해서 같은 가족 형태라도 좀 더 많은 동거 친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광무 호적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가택 규모와 유형이 있다. 한성부의 가택 규모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5~9칸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해당 규모가 한성부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택 규모로 이해되고 있다.¹⁶⁾

16) 吉田光男은 광무 호적을 활용하여 한성부의 가택 규모를 분석하고, 그 결과 9칸 이하의 가택이 전체의 58.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고 분석하였다(吉田光男, 『近世ソウル都市社會研究 - 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2009, 126쪽). 또한 김현진도 광무 7년 한성부 호적의 前居地 항목을 분석하여, 거주지를 이동했던 3,551호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택 규모를 살펴보면, 5~9칸에서 45.7%로 매우 높았다고 보았다(김현진,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37집, 524~525쪽).

〈표 9〉한성부 五署 가족의 가택 규모

지역 규모	北署			中署			東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5칸 이하	11.7	20.5	11.5	15.9	9.5	6.7	18.2	27.6	12.7
6칸	9.1	6.9	7.9	3.2	6.7	3.3	18.2	19.4	10.2
7칸	9.1	9.9	10.9	8.5	8.3	4.5	0.0	16.3	5.1
8칸	9.1	13.1	9.5	8.5	6.0	3.9	27.3	6.1	12.7
9칸	16.9	8.3	9.5	3.2	6.3	6.0	0.0	10.2	7.6
10칸	11.7	7.3	9.3	6.4	5.1	6.7	9.0	3.1	14.4
11칸 이상	32.4	33.8	40.7	53.2	58.1	68.9	27.3	17.3	37.3
不明	0.0	0.2	0.7	1.1	0.0	0.0	0.0	0.0	0.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규모	西署			南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5칸 이하	54.6	48.0	30.3	17.1	19.6	11.0
6칸	22.7	10.3	13.2	6.1	8.0	4.7
7칸	4.5	9.8	6.9	7.1	8.6	7.1
8칸	0.0	7.4	10.9	10.1	10.6	7.1
9칸	4.5	6.5	5.6	9.1	8.4	7.7
10칸	4.5	4.6	8.9	9.1	8.2	8.5
11칸 이상	9.2	12.9	24.0	40.4	36.3	53.9
不明	0.0	0.5	0.2	1.0	0.3	0.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별 가족 구성에 따라서 가택 규모를 살펴보면, 동서의 핵가족을 제외하고 북서와 중서 그리고 남서에서 거주했던 전체 가족은 11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서에서 거주했던 모든 가족만이 5칸 이하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택 규모가 해당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가족의 경제 상황은 중서>남서>북서>동서>서서 순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택 규모와 가족 구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첫째, 독신은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서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11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성부, 특히 한성부 성내의 독신에서 동거 친속은 없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기구·고용을 그들 호에 포함하여 거주하였기에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11칸 이상 가택 규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핵가족은 동서와 서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11

칸 이상 가택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에 따라서 가택 규모가 5칸 이하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상황을 보이며, 평균적인 가택 규모에서 독신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다. 셋째, 중서의 확대가족은 전체의 68.9%가 11칸 이상의 가택을 소유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확대가족은 중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11칸 이상 가택 비율에서 높았던 가족 형태이었다.

11칸 이상의 가택을 소유한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핵가족>독신 순으로, 가택 규모로 보았을 때 확대가족이 다른 가족 형태보다 경제적 능력에서 좀 더 나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¹⁷⁾ 확대가족은 다른 가족과 비교해서 단순히 다양하고 다수인 동거 친속을 그들의 가족에 포함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수인 동거 친속을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가택 규모와 함께 한성부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였던 가택 유형을 분석하였다. 가택 유형은 원문이 훼손되거나 가택 종류가 기재되지 않았던 不明을 제외하고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0〉한성부 五署 가족의 가택 유형

지역 유형	北署			中署			東署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己草	53.2	56.8	56.3	13.8	19.1	13.3	54.5	65.3	45.8
借草	7.8	6.4	5.9	3.2	1.0	0.3	0.0	4.1	0.8
己草+借草	0.0	0.2	0.2	0.0	0.3	0.0	0.0	0.0	0.0
己瓦	28.6	16.1	22.9	69.1	64.1	73.7	18.2	12.2	38.1
借瓦	1.3	4.7	1.4	3.2	7.6	3.9	0.0	0.0	0.0
己瓦+借瓦	0.0	0.0	0.0	0.0	0.0	0.3	0.0	0.0	0.0
瓦家+草家	9.1	15.6	12.7	9.6	7.6	8.2	27.3	18.4	14.4
不明	0.0	0.2	0.6	1.1	0.3	0.3	0.0	0.0	0.9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7) 임학성은 조선 후기(17세기 후반~19세기말) 호적 관련 자료 383점을 활용하여 신분별 가족 구성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가족의 규모와 결합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서 가족의 크기에 주목하여, “가족의 규모 및 결합 범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인 가족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의 크기는 신분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바로 가족규모 및 가족결합 범위가 신분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임학성, 『戶籍관련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가족구성 양상 - 한국가족사의 실체를 究明하기 위한 하나의 試圖 - 』, 『민족문화연구』 제4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363~364쪽).

지역 유형	西翼			南翼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己草	95.5	86.1	83.9	31.3	42.5	30.4
借草	0.0	2.6	2.6	3.0	2.4	1.6
己草+借草	0.0	1.0	0.3	0.0	0.8	0.0
己瓦	4.5	5.3	6.3	50.5	36.9	48.7
借瓦	0.0	0.5	0.7	0.0	3.2	3.0
己瓦+借瓦	0.0	0.0	0.3	0.0	0.0	0.3
瓦家+草家	0.0	3.8	5.3	14.2	13.8	16.0
不明	0.0	0.7	0.6	1.0	0.4	0.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별 가족의 가택 유형을 살펴보면, 북서와 동서 그리고 서서의 모든 가족은 己草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서는 핵가족을 제외하고 독신과 확대가족이 己瓦에서 높았으며, 중서의 모든 가족은 기와에서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가족을 가택 유형의 유사성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북서, 동서, 서서의 가족은 기초에서 높았으며 중서와 남서의 가족은 기와에서 높았다. 가택 규모와 마찬가지로 가택 유형도 해당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반영되어 草家보다 瓦家 그리고 借家보다 己家를 소유하였던 가족이 좀 더 상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이에 가택 유형으로 파악한 지역별 가족의 경제수준은 중서>남서>북서>동서>서서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가택의 규모에서도 중서와 남서의 모든 가족이 11칸 이상에서 공통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택 유형에서도 두 지역의 모든 가족은 기와 비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중서와 남서의 가족은 다른 지역의 가족에 비해서 좀 더 상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다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택 유형은 가족 형태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성부의 확대가족은 기와 비율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독신과 핵가족 순이었다. 결국 기와 비율에 따른 경제적 수준은 가족 형태에 따라서 확대가족>독신>핵가족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따른 가택 유형 차이는 해당 가족의 사회경제적 능력 이외에 거주지 이동과 지속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먼저 한성부의 독신, 특히 성내의 독신은 전체 독신의 와가 비율을 높이고 있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내의 독신은 40대 이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전)관직과 상업으로 기구·고용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에서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한성부 성내에서 거주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거주지 이동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했던 측면을 보여준다.¹⁸⁾ 그들의 이러한 능력과 상황은 가택을 선택할 때, 거주를 지속할 목적으로 좀 더 나은 가택을 선택할 가능성에서 높았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독신의 가택 규모와 종류에 반영되어 11칸 이상의 규모와 기와 가택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핵가족은 호주와 처 혹은 호주와 처 그리고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호주가 직업과 생계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동할 가능성에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출산에 따른 자녀의 증가와 새로운 친속의 포함 등으로 가족 구성의 변화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다. 이에 그들은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가택을 선택하는 것보다, 거주 이동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현실적인 가택을 선택함으로써 가택 규모와 종류에 따른 경제적 수준에서 다른 가족에 비해서 낮았다고 추측된다.¹⁹⁾

확대가족의 가택 유형은 성외 지역이었던 서서를 제외하고, 기와 비율에서 최소 48.7%(남서), 최대 73.7%(중서)이었으며, 독신 그리고 핵가족과 비교했을 때, 평균 기와 비율에서 더 높아 다른 가족보다 상위의 경제적 상황을 보였다. 확대가족은 다수의 동거 친속을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포함할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다양한 혈연으로 결합된 가족 구성의 특성 때문에 거주지 이동의 가능성에서 낮았다고 보인다. 이에 거주지 지속 성향이 강한 상황 속에서 가택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11칸 이상의 규모와 기와 가택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인다.²⁰⁾

18) 기와와 11칸 이상 가택에서 높았던, 남서 광통방 독신을 대상으로 그들의 前居地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비율은 대략 23.1%에 그쳤다.

19) 기초와 5칸 이하 가택에서 높았던 동서 연화방의 핵가족을 전거지 항목으로 분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비율은 대략 52.1%로 나타났다.

20) 기와와 11칸 이상 가택에서 높았던 남서 훈도방의 확대가족은 그들의 전거지 항목을 분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비율에서 대략 40.7%이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光武 7년·10년에 漢城府 5署 12坊에서 거주하였던 3,935戶를 대상으로, 그들 호적에 기재되었던 동거 친속을 활용하여 가족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다각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한성부 주민의 가족 구성의 특성과 가족 형태별로 나타나는 집단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한성부 주민의 가족 구성은 호주와 그의 동거 친속 관계에 주목하여 독신과 핵가족 그리고 확대가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가족 형태에 나타나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별 호주와 동거 친속의 특성이 가족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아울러 고찰하였다.

호주의 특성은 연령과 직업 그리고 경제적 능력으로 나누어 호주 개인의 특성과 가족 구성에서 나타나는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호주 연령에 따른 가족 형태는 호주의 연령별 경제적 능력과 동거 친속 등에 영향을 받아 특정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독신은 40대 이후에서, 핵가족은 30~40대에서 그리고 확대가족은 20~30대와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 형태는 호주의 직업에 의해서도 특정한 집단성을 보이었다. 한성부의 가족에서 호주 직업은 (전)관직과 상업 그리고 평민과 유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호주 직업이 (전)관직과 유업인 경우에 확대가족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업과 평민 호주의 가족은 핵가족 그리고 독신은 상업과 (전)관직에서 높았다.

셋째, 가족 형태와 호주의 경제적 능력은 호주가 그들 호에 포함하였던 기구·고용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구·고용 비율은 확대가족>핵가족≥독신 순으로 나타났으며 확대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경제적 능력에서 우선시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넷째, 한성부 가족의 특징이었던 첩 포함 가족은 중서와 남서에서 높았으며, 가족 형태 중에 호주+첩으로 구성된 핵가족에서 높게 나타났다. 첩 포함 가족은 호주 직업에서 대다수가 (전)관직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가택 규모는 11칸 이상에서 매우 높았다. 한성부의 확대가족과 함께 첩 포함 가족도

호주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우선시되었던 가족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호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 형태를 동거 친속 내용에 따라서 6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한성부의 상인과 평민 그리고 유업의 호주들은 호주+(처)보다 호주+(처)+미혼 자녀 그리고 호주+직계 보다 호주+비직계 포함 가족에서 좀 더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한성부의 상위 가족이었던 (전)관직 호주 가족과 마찬가지로, 상인, 평민 그리고 유업 호주의 가족들도 다수의 동거 친속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며 가족 내에서 인적 결속을 확대·강화했던 모습으로 파악된다.

둘째, 가족 규모는 독신 1인, 핵가족 2인, 확대가족 4~6인에서 가장 보편적인 규모를 보였으며, 동일한 가족 형태라도 동거 친속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족 형태별 경제적 능력을 가택 규모와 유형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가족은 11칸 이상의 가택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확대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11칸 이상의 가택에서 더 높게 나타나 확대가족의 구성에서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요소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가택 유형을 통해서 가족 형태별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중서와 남서의 가족은 기와에서 북서와 동서 그리고 서서는 기초에서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의 지속 가능성에서 높았던 독신과 확대가족은 11칸 이상의 기와 가택에서, 거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었던 핵가족은 10칸 이하의 기초 가택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광무 호적에 기재된 내용을 추적하여 1903~1906년 한성부 가족의 양상 및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한성부 가족은 근대 초기 도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방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적 관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 구성은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집단적 성향을 보였으며, 가족 형태별로 나타난 집단적 성향은 한성부의 다양한 인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성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식이자 결과이었다.

■ 참고문헌

1. 자료

- 「光武七年 漢城府北署嘉會坊 戶籍」
 「光武七年 漢城府北署安國坊 戶籍」
 「光武十年 漢城府北署觀光坊 戶籍」
 「光武十年 漢城府中署壽眞坊 戶籍」
 「光武十年 漢城府中署瑞麟坊 戶籍」
 「光武十年 漢城府中署澄淸坊 戶籍」
 「光武七年 漢城府東署蓮花坊 戶籍」
 「光武七年 漢城府西署盤松坊 戶籍」
 「光武七年 漢城府西署龍山坊 戶籍」
 「光武七年 漢城府南署廣化坊 戶籍」
 「光武七年 漢城府南署薰陶坊 戶籍」
 「光武七年 漢城府南署大平坊 戶籍」(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官報』)

2. 저서

- 吉田光男, 『近世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2009.

3. 논문

- 宮嶋博史, 「朝鮮甲午改革以後の商業的農業」, 『史林』 57-6, 日本. 史學研究會, 1974.
- 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거주민 양상과 都市性格 - 光武 10년 漢城府 北署 城內8坊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31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 _____, 「19세기말 仁川港 居住民 양상과 對民統治方式 - 광무 2년(1898) 仁川港 沓洞·外洞 戶籍을 중심으로 - 」, 『인천학연구』 제20집, 인천학연구원, 2014.
- _____,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3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 _____, 「근대 초기 도시가족과 兒童 인식의 패러다임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향토서울』 제 91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5.
- _____,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 - 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44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7.
- _____, 「근대 초기 도시가족 구성에서 보이는 여성의 존재와 경계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에 기재된 여성호 주를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50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 _____,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 양상과 가족 특성 - 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53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
- _____, 「1903~1906년 漢城府 軍人 계층의 거주 특성과 성격 - 光武 7~10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서울과 역사』 제100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22.

- _____, 「근대 초기 한성부에서 나타난 삶의 경계와 계층적 변화 - 戶籍에 기재된 平民집단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64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 -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 」, 『서울과 역사』 제92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6.
- 이정주, 「19세기 말~20세기 초 호적 자료를 통해 본 한성부의 가택과 그 특성」, 『역사민속학』 제65호, 역사민속학회, 2023.
-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성부의 고용인과 의탁인」, 『한국학연구』 제72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4.
- 임학성, 「戶籍관련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가족구성 양상 - 한국가족사의 실체를 究明하기 위한 하나의 試圖 - 」, 『민족문화연구』 제4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 _____, 「20세기 초 慶南 草溪郡 주민의 거주 양상 - 光武 11년(1907) 草溪郡 草冊面 · 伯岩面 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 」, 『한국학연구』 제46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7.
- _____, 「19세기 말 함경남도 端川郡 주민의 생활 양태 - 1896년 新滿面 '新式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 」, 『역사민속학』 제66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24.
- 吳 星, 「19世紀 末 仁川港의 戶와 戶主 - 光武戶籍의 檢討」, 『歷史學報』 제131집, 역사학회, 1991.
- 조 은 · 조성윤, 「韓末 서울 지역 娼의 존재 양식 -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 『사회와 역사』 제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24.
- 차인배,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을 통해 본 순검의 거주와 생활 양상」, 『역사민속학』 제51호, 역사민속학회, 2016.

The family structure and lifestyle of the residents of Hanseongbu(漢城府) between 1903 and 1906

Focusing on the Household Registers of Hanseongbu
in the 7th and 10th Years of Gwangmu(光武)

Kim, Hyon-Jin*

This study uses the household registers of Hanseongbu(漢城府) from the 7th and 10th years of the Gwangmu(光武) era, covering the 12 bang(坊) of Hanseongbu(漢城府), to classify the family structures of 3,935 households into single-person,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It examines the collective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family types based on the attributes of the head of household and family members.

Firstl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of households reflected in family structures include age, occupation, and socioeconomic abilities, approached through the ratios of dependents and employee, and the inclusion of concubines. The individual capabilities and circumstances of the heads of households by age group influenced family structures, showing different age groups with high proportions depending on the family type. The occupations of the heads of households also demonstrated collective tendencies in specific jobs depending on the family type. Additionally, families with dependents, employee, and concubines were identified as typical family structures in Hanseongbu(漢城府), indicating higher socioeconomic status of the heads of such families.

Secondly, when examining family struc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Inha University

members, not only former government officials but also families of merchants, commoners, and farmers included a variety of relatives in their households, strengthening human bonds through kinship connections. Although family size varied slightly by region depending on cohabiting relatives, most family types showed similar scales.

Thirdly, when analyzing the economic level through the size and type of houses, many families owned houses with more than 11 khan(間), indicating a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Particularly, extended families showed the highest proportion of houses with more than 11 khan(間), confirming that economic status was a crucial factor in the composition of extended families. The housing types in Hanseongbu(漢城府) reveale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s of tiled and thatched roofs.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relocation and settlement, single-person and extended families had higher proportions of tiled houses, while nuclear famili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grass-roofed houses.

Analyzing the families of Hanseongbu(漢城府) through the Gwangmu(光武) household registers reveals tha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residences, the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kinship relations, showing specific collective tendencies by family type. These collective lifestyles were the results of their efforts to maintain and sustain their lives and those of their families in the modern city of Hanseongbu(漢城府).

Key words: Gwangmu(光武) household register, Hanseongbu(漢城府), single-person family, nuclear family, extended family, collectivity